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2년 7월 5일 화요일
www.sportsdonga.com

◀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4일 서울 아디다스 홍대 브랜드센터에서 '손 커밍 데이'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다가올 토트넘의 방한 경기, 2022~20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올해 11월 열리는 카타르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과 소감을 밝혔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월드스타 손흥민이 밝힌 'EPL 득점왕 비하인드 스토리'

"너, 득점왕 만들어줄게" 동료들 '골드부트' 작전

마지막 경기, 모두 도와줘 더 행복
국대 데뷔 시리아전 가장 기억남아
월드컵서 '우리 색깔 보여주기' 중요
"난 욕심이 많은 사람…더 독해질 것"

2021~2022시즌 23골을 터트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30·토트넘)의 여름은 치열하다. 휴식기에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그는 4일 서울 아디다스 홍대 브랜드센터에서 '손 커밍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EPL '골든부트' 수상 비하인드와 11월 열리는 2022카타르월드컵을 향한 각오를 밝혔다.

● EPL 득점왕 비하인드

손흥민의 EPL 득점왕 등극은 올해 상반기 중 가장 극적인 일이었다. 5월 23일 노리치시티와 리그 최종전(5-0 승)에서 멀티골을 넣어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공동으로 골든부트를 받았다. 토트넘 동료들은 이날 손흥민을 득점왕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전반전까지만 해도 많이 조급했다"는 그는 "동료들이 교체로 투입될 때마다 '득점왕 만들어줄게'라고 말하더라. 득점왕이 된 것보다 그게 더 행복했다"고 말했다.

손흥민과 친구들의 '케미'는 곧 한국에서 직접 관전할 수 있다. 토트넘은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팀 K리그'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을 통해 프리시즌을 시작한다. 그는 "친구들이 한국행에 대한 기대가 크더라. 팬들에게 친구들을 보여줄 엄청난 기회다. 큰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고 다짐했다.

● 막내에서 캡틴으로

축구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지난달 6일 칠레와 친선경기를 통해 센추리클럽(A매치 100회 이상)에 가입했다. 현재까지 102회의 A매치 중 데뷔전인 시리아전(2010년 12월)을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꼽았다. "롤모델 (박)지성이 형과 그 시절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룸메이트로 지내며 어떻게 쉬고 컨디션을 만드는지 배웠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대표팀 막내였던 손흥민은 이제 주장 완장을 차고 월드컵에 출전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다 보여줄지를 가장 많이 생각한다"는 그는 "어린 후배들과 오래 함께 한 동료들에게 월드컵이라고 해서 너무 힘을 주지 말자고 말하고 싶다. 4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부담감과 무게감 때문에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슈퍼스타의 삶'

손흥민은 슈퍼스타의 삶을 살고 있다. 개인 패션브랜드 론칭, 광고 촬영뿐 아니라 아마추어 여자축구 클럽 행사에 참석하는 등 팬들과 적극 호흡한다. 그러면서도 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엔 한강변을 따라 러닝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새 시즌은 늘 제로(0)에서 시작한다. 일정이 바쁘지만 새벽에라도 운동한다. 한국에서 프리시즌을 시작하는데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월드클래스'로 향할 손흥민의 새 시즌 목표는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것이다. 그는 "운동장에서 욕심이 많은 편이다. 목표를 일찍 달성하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 모든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힘주어 얘기했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양현종-김광현 선발 맞대결…KBO 올스타 베스트 12 최종 선정 ▶2면

'탑건:매버릭' 330만 돌파…'탑건 열풍'의 힘

현란한 비행쇼와 신나는 음악이 오감을 자극한다.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주연한 '탑건 :매버릭'이 36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20·30세대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극장·OTT 올킬…OST도 인기 중장년 넘어 2030세대도 홀릭

스크린 2주째 정상…OST 앨범도 판매 1위
"CG 없는 진짜 액션" 젊은층에 볼거리 제공

36년 만에 돌아온 '탑건'이 쾌속 질주하고 있다. '마하 10'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영화는 10~30대뿐 아니라 중장년층 관객의 고른 지지를 얻으며 장기 흥행의 엔진을 가열하고 있다.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1986년 개봉한 전편까지 다시보기 열풍도 일고 있다. 덕분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온라인 음원사이트 등에서 '탑건' 바람이 거세다.

●극장·OTT 순위 '올킬'

4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탑건: 매버릭'(매버릭)은 지난 주말 동안 114만5256명을 모아 3일 현재까지 누적 332만9111명을 동원했다.

'매버릭'이 극장을 휩쓸고 있다면, 36년 전 개봉한 전편 '탑건'은 OTT를 뒤흔들고 있다. 티빙, 웨이브, 왓챠 등에서 '탑건'은 '많이 본 영화 순위' 1위에 올랐다. IPTV·디지털케이블TV·VOD 주간 이용 순위를 집계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온라인상영관 박스오피스에 따르면 6월 22일부터 온라인 상영을 시작한 올해 개봉작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이어 전체 2위를 기록 중이기도 하다.

OST 인기도 뜨겁다. '데인저 존'(Danger Zone), '아이 에인트 워리드'(I Ain't Worried) 등 OST 앨범이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인터파크·예스24·알라딘 등 대형 온라인 음반 판매 사이트에서 OST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했다. 2020년 6월 발매된 1편의 리마스터링 블루레이 판매량도 급상승했다. 예스24와 알라딘에서 각각 1위와 3위에 랭크됐다.

●"추억과 향수 그리고 볼거리"

'매버릭'은 젊은 관객에게도 인기다. 4일 CJ CGV 관람층 분석에 따르면 개봉 전까지 전체 예매 관객 중 40대 관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개봉 후 입소문에 힘입어 20·30대 관객이 급증했다. 이날 오전 기준 전체 관객의 31%가 30대, 28%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봉 전 예매 비율 40%였던 여성 관객도 47%로 증가했다.

젊은 세대에게는 CG(컴퓨터그래픽) 없이 구현한 사실적인 액션 장면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과시한 힘이라는 분석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4일 "1편의 추억을 고스란히 상기시키는 OST는 물론, 36년 전과 똑같은 항공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내달리는 톰 크루즈의 모습이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CG가 아닌 직접 촬영한 항공 액션신과 차례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 요소가 젊은 관객의 흥미도 자아내기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CJ WELLCARE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100% 국산 저온농축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